

## 『라틴아메리카연구』 기고 요령

1. 한국라틴아메리카 학회에서 연 2회 발간하는 『라틴아메리카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전역과 이베리아반도 지역에 관한 지역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 본 학회는 학회원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 주실 원고는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순수 학술논문을 기본으로 합니다.

3. 게재 신청을 하실 논문의 연구 분야나 제목은 제한이 없으나 게재여부는 편집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이 논문을 보내실 때는 아래의 '원고작성요령'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컴퓨터용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셔서 원고 1부와 디스켓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논문의 영문제목과 영문 성명, 그리고 300자 내외의 한글 논문초록을 첨부하십시오.

5. 학회지 기고에 관한 제반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내 한국 라틴아메리카학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고 송달의 경우 궤봉투에 반드시 '학회지 원고게재신청'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접수처 :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내 한국라틴아메리카 학회

전화 : 880-8511

주종택 : 871-6866



### 〈원고작성요령〉

1. 원고는 적당한 줄간격을 두어 읽기 쉬워야 하며 상하 좌우에 적당한 여백을 남겨서 검토하거나 편집자가 노트를 하기 쉽도록 한다.

2. 원고는 다음 6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1) 원고의 첫장은 제목 장으로서 논문의 제목과 기고자의 이름, 소속, 주소(전화와 팩스 번호 포함)를 명기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제목 우측 상단에 별표(\*)를 표기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2) 별도의 장에 본문이 국문인 경우에는 외국어 요약문, 본문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국문요약문(제목, 연구자 이름, 핵심 단어 등을 포함, A4 용지에 더블 스페이스로 한 장)을 작성한다.

(3) 본문은 새로운 장에 제목부터 시작한다.

1) 본문이 국문인 경우 한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기타의 외국어는 첫번에 한하여 한글 옆에 괄호하여 표기한다. 외국어의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어 발음에 가장 가깝게 한글로 표기하고, 첫번에 한하여 원어를 괄호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명사는 이 원칙에서 예외로 하되 해당 논문에서의 표기는 저자 나름대로 통일한다. 예) Cuba : 쿠바(×), 쿠바(○).

2) 본문의 장, 절, 제목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씀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대소 번호는 'III, 3, (3), 3, XXX, 다'의 예를 따른다.

3) 본문에 있는 내용에 관련된 참고문헌은 '약식주'로 처리하며 본문 내에 저자와 출판 연도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페이지도 포함시킨다.

(예)

①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있는 경우 : 민만식(1985), 니들러(Needler, 1984)

②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없는 경우 : (민만식, 1985), (Neddler, 1984)

③ 페이지 부여는 : (Needler, 1984 : 71~75)

④ 4명 이상이 쓴 공저는 : (민만식 외, 1990), (Lomnitz et. al., 1993). 단 본문 뒤의 참고문헌 난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록해야 함.

⑤ 참고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 (O' Donnell, 1992 ; Casanova, 1990 ; Smith, 1993)

⑥ 간행 예정인 원고는 '미간' 이나 'forthcoming' 을 사용할 것. 미간 된 논문은 집필 연도를 기록할 것. 연도가 없는 것은 그 자리에 'n.d.' 을 쓸 것 : 강석영(미간), Fuentes(forthcoming), Wolf(n.d.)

⑦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중남미연구소, 1994)

4) 각주는 추가로 참고할 만한 논문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혹은 관련된 논의를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본문의 아래쪽에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대로 베껴 제시한다(일반적으로 긴 각주는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산만하다는 느낌을 주며 출판 비용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능하면 각주 대신에 더 자세한 정보를 저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삽입시키거나 부록(appendix)을 사용할 수 있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1〉' 또는 '〈그림 1-1〉'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부여한다. 표나 그림을 설명하는 '주' 는 표나 그림 바로 밑에 '주 : 1)' 과 같이 번호를 부여한 후에 제시하며 아스테리스크(asterisk : \*)는 통계적 유의 수준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 출처는

‘자료 :’ 라고 쓴 다음에 제시하며 그 형식은 참고문헌의 예를 따른다. 그림(삽화, 사진포함)의 경우 직접 사식이 가능할 정도로 선명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4)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이어서 <참고문헌>이라고 제목을 쓰고, 한 칸 뒀던 뒤에 제시한다. 본문이나 각주에 제시된 모든 참고문헌이 여기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2) 순서는 저자명에 따라 국문, 영문(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어 등 포함), 기타(일본어, 중국어 등)의 순서로 제시하되 국문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과 기타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다.

(예)

민만식 · 권문술, 『전환기의 라틴아메리카』, 서울 : 탐구당, 1985.

강석영, 「과테말라의 폭력과 사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논총』, 제 5호

Hayes, Margaret D. *Latin America and the U. S. National Interest : A Basis for U. S. Foreign Policy*, Boulder, CA. : Westview Press, 1984.

McCoy, Jennifer L. “Nicaragua in Trsition,” *Current History*, 90(554), March, 1984.

Needler, Martin C. “Contemporary Mexico,” in Jan Knippers Black (ed.), *Latin America : Its Problems and Promise*, Boulder, CA. : Westview Press, 1984.